

좋은 글들을 남기고 우리 곁을 떠난 문인들이 참 많다. 몇 해 전까지 소설가로써 박경리를 비롯하여 오창식, 홍성원 그리고 시인 정공채도 있다. 특히 그는 인종을 예감이나 하듯 한편의 시를 필자가 주간으로 있는 잡지에 보냈다.

"제상 떠나면서 운다/ 그때 태어날 때와 지금 운다/ 눈물 소리 못 내고 한두 방울/ 이 빗방울에 말도 없이 고별사 안긴다/ 잘 있거라 내 사랑아." ('고별사' 전문) 몸은 비록 떠났지만 그들이 남긴 작품들 속에 담긴 감동적인 교훈과 가르침은 어떻게 살아야하는지를 일깨워 준다. 번뇌의 중생계가 다하는 날은 기약조차 할 수 없으며 삶은 참나처럼 한낱 보잘 것 없음을 알게 한다.

얼마 전 신문에 미국에 50여개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는 40대 억만장자의 삶을 소개한 기사가 있었다. 그는 부자가 되고 보니 소유에는 점차 흥미를 잃게 됐다고 하며, 고급주택이나 심지어 자동차도 없이 호텔에서 살고 있다는 내용이였다. 앞으로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뒤집어 보면 거기까지이다. 주변에는 가진 게 없어서 무소유로 살아가는 보통사람들에게는 어쩌면 그런 미담도 사치스러울 수도 있다. 물욕은 인간이 갖는 자연스러운 본능이다. 어느 사회든 버리는 사람보다는 갖기를 욕망하는 사람들에 의해 사회는 발전해왔지 않은가. 에리히 프롬이 말년에 저술한 <소유냐 존재냐



불자 세상보기

이강렬 극작가, 한국문인협회 상임이사

나눔, 그 소중한 지혜

>에 의하면 인간은 소유 지향과 존재 지향으로 나뉘어 있다고 한다. 소유 지향은 꽃은 아름다움에 중요하고 것이 아니라 내거나 아니거나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존재 지향은 꽃을 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좋기 때문에 꼭 가져야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은 점차 소유 지향으로 바뀌어 간다고 말한다. 오죽하면 요즘에는 사람에 대한 평가도 그가 누구며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질문보다는 그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나

에 초점을 맞춰 얘기할까. 어쩌든 소유와 욕망에는 끝이 없기 때문에 소유지향적인 삶은 행복하기 힘들고 결국 후회하게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배운다. 그래서 비움의 문화 즉 기부가 있는 것이다. 삶을 정리하는데 있어서 그것만큼 가치 있고 진실한 행위는 없을 것이다.

나눔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지혜이고 행위이다. 한마디로 말해 부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지름길인 셈이다. 부처님도 깨달음을 이룬 뒤 줄 곧 법을 나누는 생활을 몸

소 실천했다. 만약 부처님께서 그러한 나눔의 행위를 가르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떠했을까. 따라서 우리도 '중생공양(衆生供養)이 제불공양(諸佛供養)'이라고 하듯 항상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뒤돌아보는 공덕의 숲을 가꾸어야 한다.

그러나 나눔에 아쉬움이 남거나 나눔을 즐겨 할 줄 모르면서 말로만 나는다고 하면 진정한 비움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처음 이 세상에 등장했던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돌아가 보자. 피카소가 말년에 아들의 습작 같은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물었다. 무슨 그림을 그렇게 유지하고 장난스럽게 그리느냐고. 그때 피카소는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되기까지 평생을 노력하며 얻어진 결과물이라고 대답했다.

누구나 머릿속 생각을 가슴으로 가져오게 하는 데는 적잖은 시간이 걸린다. 마음에 비움이 꼭 찬 상태의 경지가 아닐까. 비움이 곧 채움이 되고 채움이 곧 비움인 것을 우리 매일 학습하면서도 어려서에도 또 망각한다. 초파일을 맞은 아름다운 5월에 지금이라도 자비행의 실천과 나눔의 참 정신을 전하는 무소유의 초보심을 내어보는 것은 어렵가.

본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마음의 결제가 중요하다

기속년 하안거가 시작됐다. 안거의 전통은 부처님 당시부터 전해져 온 것으로 불교를 불교답게 하는 가장 큰 힘이다. 일정기간 한 곳에서 집중수행을 한다는 것이 현대사회의 불자 전체에게 맞는 일은 아니다. 스님이나 시간적인 형편이 되는 불자들이라면 물라도 생활인에게 석 달 동안의 집중수행은 희망사항일 뿐이다.

그러나 안거의 전통이 선방에서만 유효한 것은 아니다. 생활 현장을 바쁘게 뛰는 사람일지라도 안거기간만큼은 특별한 마음으로 생활하며 스스로 생활 속의 안거를 실행할 수 있다. 대중생활을 하면서 안거에 틀 수 없다고 하여 안거기간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된다. 마음의 안거가 형식의 안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일부 불자들은 안거기간 중에는 육식을 금하고 언사를 각별히 조심하며 아침이나 저녁 시간을 정해 매일 108배를 한다고 한다. 스스로 자신만의 안거를 결정한 것이다. 이런 사례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이다. 불교는 형식 보다는 내용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종교다. 스스로 안거의 전통을 활용해 삶의 내용을 수행정진의 자세로 변화 시킨다면 그 역시 경건한 안거대중인 것이다.

제방의 선원에서 결제에 든 스님들은 이번 월에 결단내겠다는 금강석 같은 구도심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산 저 도량에서 오도송이 터져 나와 세상을 맑게 주길 기대한다. 재가자들도 삶의 현장에서 '수제자주'의 마음으로 정진하는 자세를 잃지 말길 당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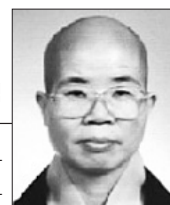
재산소유에 대한 승단의 고민

수행자를 수행자답게 하는 요소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무소유 정신'이다. 물질은 소유하지 않음으로 탐욕을 끊을 수 있고 소유욕을 버림으로써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수행자가 지나야 할 소유물을 극단적으로 제한했다.

물론 부처님 당시와 지금은 모든 면에서 천양지차이기 때문에 소유에 대한 금기가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무소유 정신' 만큼은 빛을 바래선 안 된다. 수행자가 소유욕에 물들며 탐욕의 모습을 보인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

현대사회에서 불교의 수행자들은 소유의 문제와 관련 끝없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도 그렇고 종단 차원에 서도 마찬가지다. 겨울이 정하는 무소유의 규정과 현실과의 괴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또 세간에서 보는 출세간의 재산 소유 문제는 승가에 대한 존경심과도 깊은 관계가 있어 매우 극단적인 결과를 낳기도 한다. 각 종단의 분류가 재산과 권력에 대한 소유욕에서 기인되는 점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최근 조계종이 승려의 사유재산을 종단에 귀속하게 하는 령을 제정해 입법예고 했다. 기존의 '승려법'에 적시된 내용에 따른 보완 사항이지만 이 령의 실행을 계기로 승려의 재산소유문제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논의가 진행될 기대한다. 단순히 종단 재산 보호 및 확충 차원이 아니라, 승려의 재산의 소유와 관련 계율과 현대사회의 수행자상 등을 포괄하는 진지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벽공 스님 불경사 강사, 동국대 박사



사부대중 테마칼럼

5월의 테마-가정

조선시대의 남지(南智)는 영의정을 지냈던 남재(南在)의 손자이다. 좌의정이 되어 국정을 살피던 남재가 퇴직하면 조부인 남재는 그에게 늘 하루의 일과를 물곤 했다. 남지는 공손히 자세하게 그날 있었던 일을 대답해 드렸다.

얼마 후, 그날 저녁도 어김없이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는 할아버지의 물음에 "예, 오늘 창고를 관리하는 아랫사람이 창고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비단을 숨겨 나오기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라고 했습니다. 나오면서 그 비단을 두고 나오지 않기에 또 다시 갔다 오게 했습니다. 다시 들어갔다 나오면서 또 역시 그대로 나오기에 다시 들어갔다 오라고 했더니 그때서야 제 뜻을 알고 비단을 두고 나왔습니다." 남재는 "옳지, 이제야 내가 너에게 일과를 묻지 않아도 되겠다. 그렇게 아랫사람을 다스리거라."

교육은 이론적으로, 학교의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인생 최초의 선배로서 스승으로서 부모의

아이들 입장에서 판단 배려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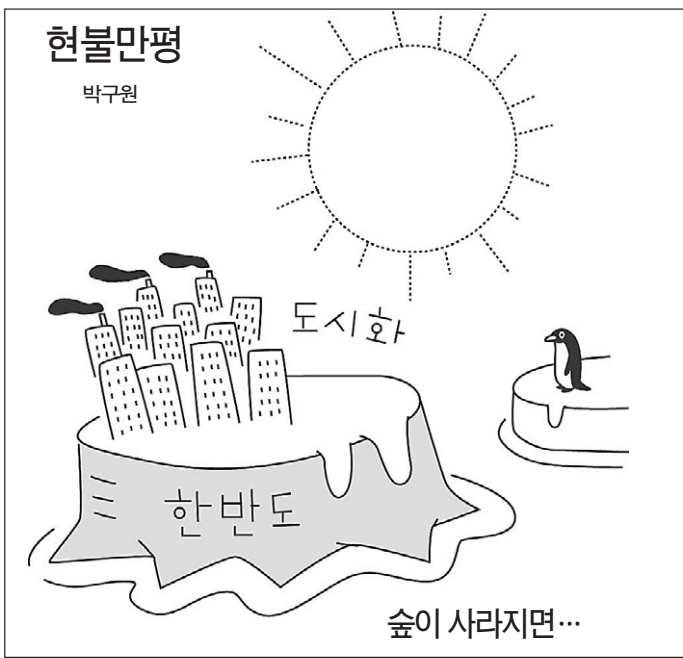
가르침이 우선하고 더 중요하다. 부모들이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아이들에게 가장 가까운 교육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본인의 미래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한 인간의 삶의 출발은 부모의 가르침과 격려로부터 시작된다. 부모는 아직 세상이라는 물결에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노 젓는 방법을 올바르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아이들이 똑바로 갈 수 있기까지는 부모의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 물장난만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따끔한 지적도 필요하겠지만, 조금 더디더라도 조금씩 하지 말고, 스스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다. 조금 앞서가고 있는 다른 아이를 보고 초조해하면서 내 아이를 다그치지 말자. 부모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아이들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이해해주는 배려가 필요하다.

아이들에게 부모는 언제라도 달려갈 수 있는 아늑하고 든든한 쉼터 같은 존재다. 최근 경제적인 문제로 이혼하는 부부들이 많이 늘고 있다. 그 가운데는 본인들 문제가 우선 되다보니 아이들의 절망과 아픔을 느끼지 못하거나 알려도 굳이 외면하는 이들이 있다.

벽공 스님

불경사 강사, 동국대 박사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중로구 인곡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불교포탈 부디피아 www.buddhapia.com
광고국 (02)2004-8213-7 온라인서점 예시아론 www.yosiamun.com
FAX (02)737-0696

현대불교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영주지사 : (054)634-3429
전북지사 : (063)910-519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불기2553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합니다.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 것과 동일한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디브이디) 출시 - 공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사주명식을 작성하는 즉시 확실히 선명하게 운명이 보입니다. - 그래야 역학입니다 -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10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공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인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금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공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도 하여 현재는 국내외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해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체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깎아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히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교역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게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정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애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인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 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케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정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이 교재를 만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습니다. 장인이 눈을 떠서 대광명을 보듯이 신속하고 틀림없는 역학적 개인에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전화를 수 없이 받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하십시오.

- ◆ 구입금액 : 일시불은 135만원, 할부가격은 15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80만원, 한달후 40만원, 두달후 30만원)
◆ 계좌번호 : 농협 351-0001-3753-03 (예금주 : 대한불교일월종추명사)



사단대 한 불 교 추 명 사 백운 성수, 도영 함장
법인 사주명리 연구학회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450번지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진가가 증명되었습니다. 발매 6개월만에 900여명이 본 교재로 공부하시고 반수 이상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공중비법입니다. 책입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인터넷으로 공부합니다

- http://www.esaju84.co.kr
•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성수철학원 또는 대구철학원'을 입력해보세요.
• DVD 동영상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 예약 받습니다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의 제자 4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30일 완성) 풍수지리(양택, 음택)포함 (40일 완성)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 전화강정 대환영(유료)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만 특혜있음)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해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개인지도 받으실 분 속삭이시며 쾌적하게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